

설날 가정예배 순서

사회 : 가족대표

개 식 사 ----- 사 회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셨으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신앙 안에 서기 위함입니다. 먼저 그 동안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낸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표기도 ----- 가족대표

성경봉독 ----- 시편 104편 28~29절 ----- 다 같 이

28.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말씀선포 ----- 인정해야 할 것 ----- 가족대표

시편104편은 자연 만물과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자체를 부정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연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의 삶을 끝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다 100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분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분도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당신의 삶은 한 순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무엇으로 세탁하더라도 씻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서 천국의 기업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세 명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일평생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21년 설날가정에배

찬 송 가 -----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 성 교 회

담임목사 이 성 오 (Pastor Rev. Rhie Seong Oh, D. Min)

076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방화동) www.kumsung.org

(교회)2661-1004, 1009, 1045 (FAX)2662-0206 (목양실)2661-9022